

한스 피터 펠드만U

ABROAD

2012 / 05 / 16

지가은

서펜타인갤러리(<http://www.serpentinegallery.org/>) 2012.
4. 11~6. 5



<David and Aphrodite> 서펜타인갤러리 설치 전경

1970년 하이드 파크 켄싱턴 가든에 문을 연 후, 현재는 영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갤러리 중 하나가 된 서펜타인갤러리(Serpentine Gallery). 이곳에서는 지금 독일 작가 한스 피터 펠드만(Hans-Peter Feldmann)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. 펠드만은 이번 회고전으로 1995년 <Take me, I'm Yours>이라는 그룹전에 참여한 이후, 오랜만에 다시 서펜타인갤러리를 찾았다. 펠드만은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한 아트씬에서 요셉 보이스, 게르하르트 리히터, 시그마 폴케와 함께 핵심적인 아티스트로 꼽힌다. 유럽 내 그의 영향력과 유명세를 생각하면 이번 전시가 런던에서 선보이는 그의 첫 번째 개인전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. 전시에서는 1970년대 초

터부시됐던 기억에 대한 회상”이라고 답변했다. 한편, 서펜타인 갤러리의 디렉터 줄리아 페이톤 존스(Julia Payton-Jones)는 이 작품에 대해 “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오늘날의 단상 그 자체를 포착한 스냅 사진”이라고 평가했다. 이렇듯 펠드만의 작품 세계는 때로는 기지가 넘치는 유머와 풍자로, 때로는 재편집된 사진 이미지들이 드러내는 가상 세계의 익명성과 공허함으로 일상을 낯설게 보기를 시도한다.

한스 피터 펠드만(Hans-Peter Feldmann) 1941년 독일 뒤셀도르프 출생. 2007년 영국 브리스톨의 아놀피니 미술관, 2010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, 2011년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개최. 2010년 광주비엔날레 및 2003년과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규모의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. 2010년 휴고 보스 상 수상.